

광주 ‘파쇄기 사망사고’ 업체, 유족에 사죄

대표 구속으로 아내 사죄문 대신 읽고 머리 숙여

“안전 설비 갖추지 않아 사고...입에 담기에 죄송”

광주의 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적장애 청년 노동자 김재순씨가 파쇄기에 끼여 숨진 지 416일째를 맞아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가 인정돼 수감 중인 사업주가 사죄문을 발표했다.

유족 측은 장애인·청년 노동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쌍암동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실에서 ‘고 김재순 산재 사망사고 사업주 사죄·유족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9시45분께 광주 광산구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작업 도중 파쇄기에 끼여 숨졌다. 지적장애 3급인 김씨는 안전 장비 없이 대형 파쇄기 입구에 걸린 폐기물을 밀어 넣으려고 기계 위로 올라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

로 기소된 업체 대표 박모(52)씨는 사고 1년여 만인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산재 사망사고 발생 업체 대표 박씨가 교도소에서 작성한 사죄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씨의 아내가 대신 낭독했다.

박씨는 사죄문을 통해 “회사 직원이자 아드님의 명복을 빕니다. 감히 입에 담기에 죄송할 따름이다”며 “사고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안전 설비를 갖추지 않아 사망 사고가 일어났다”고 했다.

또 “어머님·아버님께 마음으로 깊이 사죄를 드린다. 앞으로는 안전 설비 했던 것도 더 꼼꼼히 챙겨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죄문을 대신 읽은 박씨의 아내는 기자회견에 동석한 고 김재순씨 유족에게 고개를 숙였다.

김씨 아버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12일 오전 광주 광산구 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육실에서 지난해 5월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내 청년노동자 산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사업주 가족이 유족에게 사죄문을 낭독한 뒤 고개 숙이고 있다.

산업 현장 어디에선가 시민과 노동자가 다치고 죽어 나가고 있는 것이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의 민낯이며 부끄러운 자화상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아들처럼 열악한 산업 현장에서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장애인,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사회에서 존중 받는 노동의

권리를 찾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해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회견을 주최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는 “사업주의 법정 구속과 공개 사죄는 사필귀정이다”고 평가했다.

임형택기자

무안소방, 장마철 재난사고 현장 대응에 총력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무안군 내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에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활동에 총력을 집중해 대처한다.

6일 호우특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사전에 비상1단계를 발령하고 수난장비 정비 및 가용 소방인력 1/5을 보강하는 등 대비에 집중하였으며, 몽탄면 당호리 양계사 침수 등 21건의 신고에 대응하여 인명피해 없이 대형 피해를 막았다.

무안소방서는 장마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계 수난 구조훈련을 2회 실시하는 등 사전훈련을 마쳤으며, ▲장마철 기간 비상근무체계 운영 ▲자연재해 우려지역이나 공사장 사전 순찰 ▲구조보트나 수중 펌프 등 풍수해 대응을 위한 구조장비 사전 점검을 통해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안=이기성기자

광양소방, 계곡 고립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

광양소방서(서장 최현경) 119구조대는 2일 광양시 옥룡계곡 일원에서 여름철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계곡 고립사고 대비 인명구조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계곡 야영객 등 고립된 가상 상황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구조기술 향상 및 팀워크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구조기법을 상황에 맞춰 집중적으로 훈련했다.

주요 훈련 내용으로는 △훈련 전 안전사고 예방교육 △계곡 구조 장비 사용법 훈련 △횡단로프 설치 및 수평구조기법 숙달 △구조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훈련 등 현지상황에 맞는 훈련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정영학 119구조대장은 “예측할 수 없는 현장상황에 대비해 실전같은 훈련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은 일기예보를 확인하여 계곡물이 언제든 불어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여름철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당부했다.”고 전했다.

광양=심종섭기자

순천경찰, 범죄예방 환경개선 설명회 개최

순천경찰서는 순천 시민의 삶의 터전과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순천역전시장의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상인 설명회를 7월 6일 진행 하였다.

상인 설명회에서 사단법인 굿드어스는 순천역전시장의 상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망 구축사업의 필요성이 더 커졌음을 이야기하였다.

이어 순천경찰서와 에스원은 현장실사를 바탕으로 계획한 CCTV 사각지대 개선, 로고젝터 구축, 조명 추가 설치, 소방시설 안전 강화 등의 구체적 추진계획을 통해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계획을 설명 하였다.

이번 상인 설명회를 통해 순천역전시장의 상인들이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더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가는데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사단법인 굿드어스의 고진선 상임이사는 “순천역전시장의 상인들과 시민들이 코로나 19이후에 범죄에 대한 불안과 심리적 정서적 불안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사회가 풀어야 할 과업이며, 이러한 과업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참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순천=김승호기자

담양경찰,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장애인 업무협약 체결

담양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전남지체장애인협회 담양군지회(지회장 여운복)와 7월 6일 장애인의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담양경찰서장은 “지속적으로 장애인 관련 문제를 장애인 단체 및 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장애인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여수의회-여수시, 의회사무국장 인사 놓고 ‘대립각’

“의회사무국장 발령, 갈등·대립 물고와” 즉각 철회 요구



여수시의회가 7월초 단행한 여수시의 공무원 인사 중 의회사무국장 배치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전장근 여수시의회 의장은 12일 여수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권오봉 여수시장이 발령한 의회사무국장 정 모 씨에 대한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의장은 “시는 5일 발표된 하반기 5급 이상 정기인사에서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김 모 국장 대신 갖 승진한 정 모 국장을 임명했다”면서 “집행부가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회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으나 시는 ‘6개월 미만 근무 국소

단장은 이동시키지 않는다’며 의회 요청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전 의장은 그러면서 “오히려 군색한 변명과 불통 행정이 더 큰 분노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여수시가 의회사무국장으로 정 모 씨를 임명하자마자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자체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을 근거로 들며 임명 취지 무시와 지방의회 경시라고 반발과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시는 인사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인 데다 ‘시정의 연속성을 위해 6개월 미만 근무 국소단장은 이동시키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해오고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국장도 자리를 옮길 뜻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 의장은 “이번 인사에 5급 사무관은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5명이나 자리를 바꿨다”며 “이것이 시장이 말하는 시정의 연속성이나’고 따졌다.

이어 “실질적으로 행정을 이끌어가는 5급은 ‘6개월 원칙’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국소단장에만 이 잣대를 들이대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더 이해할 수 없다”며 공색한 변명만 늘어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장은 “갈등과 대립을 물고 온 이번 인사에 대해 이미 강력한 대응계획을 밝혔다”면서 “권오봉 시장은 사태에 책임을 지고 의회사무국장 인사 발령을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의 민선7기 들어서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청 별관증축, 만흥지구 택지개발, 인사 발령 등 현안마다 대립하고 있다.

시의회는 시가 대의기관인 의회와 협의하지 않는 등 매사에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난했다.

여수시는 여수시의회가 청사 별관 증축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 여론 조사 실시를 약속해 놓고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으로 되받아치고 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수시의회에서 공무원을 불러들여 시 행정을 추궁할 경우 민원성일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응하지 말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여수=오상호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